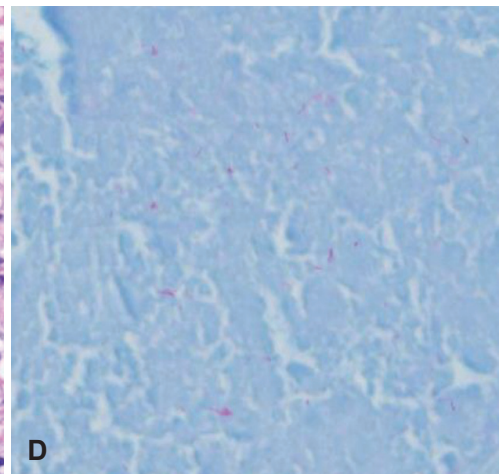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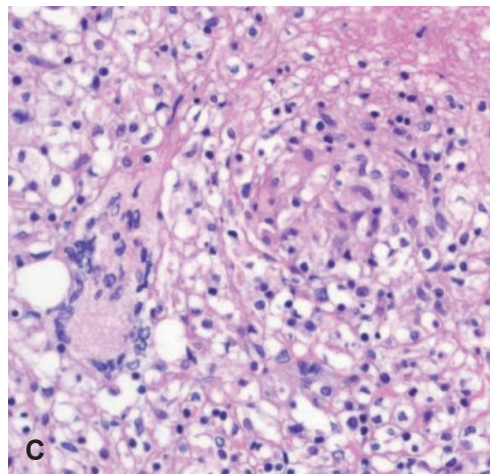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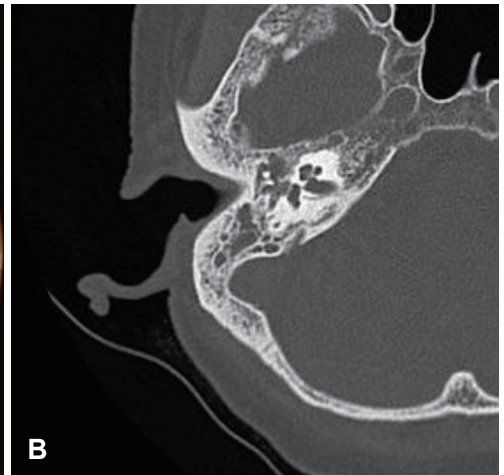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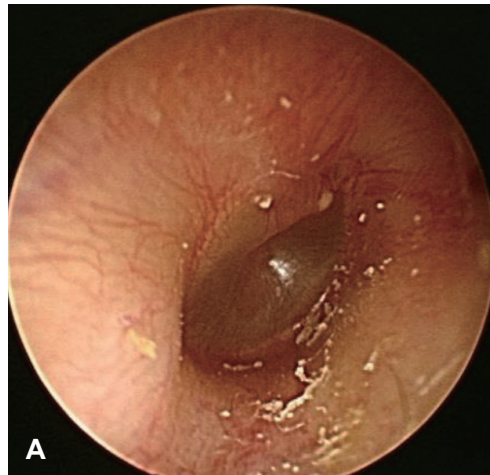


1. 72세 여환이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이충만감으로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아래의 사진 A와 같은 소견이 확인되어 우측 이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이루가 지속적으로 호전되지 않았다. 6개월 째에 촬영한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상 B와 같은 소견이 확인되어 우측 고실유양돌기 삭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 확인되는 조직에 대해 조직검사 및 면역염색을 시행하여 C, D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은?



- ① 만성 중이염
- ② 삼출성 중이염
- ③ 결핵성 중이염
- ④ 콜레스테롤 육아종
- ⑤ 진주종성 중이염

정답 및 해설은 215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48세 여자 환자가 이전부터 진단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어 보청기를 6개월 이상 착용하였으나 이득이 없어 우측 인공 와우 이식술을 시행 받기로 하였다. 유양동삭개술 후 후고실 개방술을 시행하던 중, 내측에 drilling을 시행하다가 생리식염수 세척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drill이 진행된 이후, 안면신경모니터링 기계에서 일시적으로 신경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안면신경관의 결손은 없었으며, 수술 종료 직후 우측의 House-Brackman grade III의 말초성 안면마비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치료로 적절한 것은?

- ① 외이도 packing 제거
- ②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 ③ 안면신경 감압술(facial nerve decompression)
- ④ 직접 단단문합술(end-to-end anastomosis)
- ⑤ 신경이식술(nerve graft)